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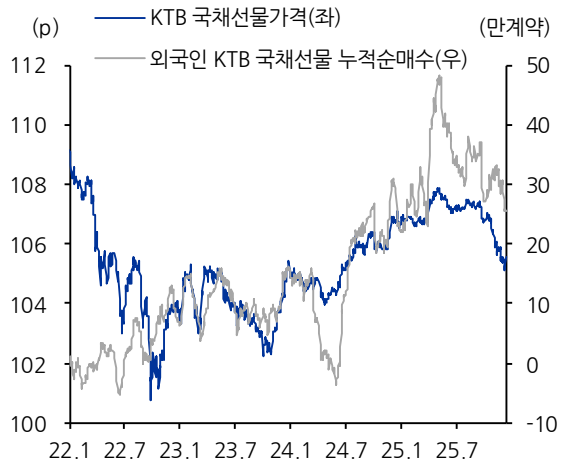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 02)368-6149_ j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_ 02)368-6138_ jhoonlee@eugenefn.com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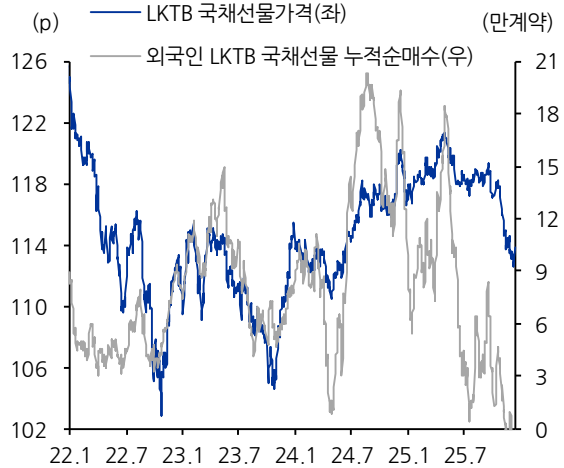
(단위: %,bp, 틱)

		12/15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000%	-9.3	-3.4	40.4
	한국 국고채 10년물	3.325%	-8.4	-7.6	47.0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32.5	31.6	36.7	25.9
	3년 국채 선물(KTB)	105.56	31.0	11.0	-109.0
	10년 국채선물(LKTB)	113.82	94.0	58.0	-310.0
해외 채권	미국채 2년물	3.503%	-2.1	-7.3	-73.7
	미국채 10년물	4.174%	-1.1	1.0	-39.8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67.2	66.3	59.0	33.3
	독일국채 10년물	2.851%	-0.7	-1.0	48.8
	호주국채 10년물	4.726%	-1.0	1.9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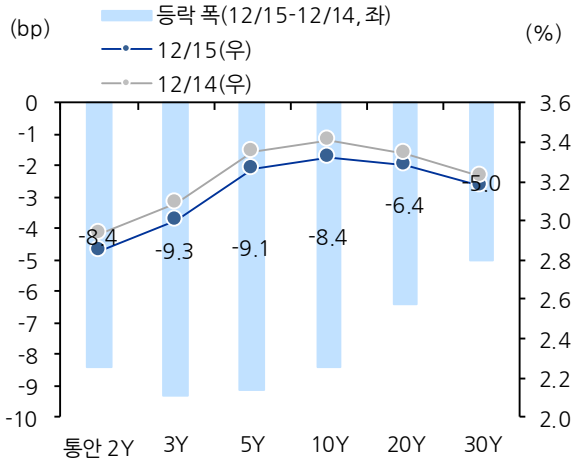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대폭 강세 마감.
- 전일 미국 금리 영향으로 소폭 하락 출발한 국내 금리는 외국인의 3년, 10년 국채선물 순매수 확대의 영향으로 하락폭 점차 확대.
- 국채선물 만기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 거래가 활발해지자 금리 하락폭 매우 컸음. 개장 전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리 상승 및 외환시장 변동에 대해 경계심을 표시한 것도 영향. 오후 외국인을 따라 증권사, 은행 등 국내 기관도 숏커버성 매수를 하면서 금리 하락폭 확대.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 지표 대기 및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의견 엇갈림.
-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익일 발표될 11월 비농업 고용과 10월 소매판매 등을 앞두고 관망세 이어지며 소폭 강세 출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해싯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나오면서 한 때 장기구간을 위주로 금리 상승하기도 함.
- 현재 베팅 사이트에 따르면 차기 의장 예상 1위는 워시 전 연준 이사, 2위는 해싯 위원장이나 매우 근소한 차이임.

자료 출처: 연합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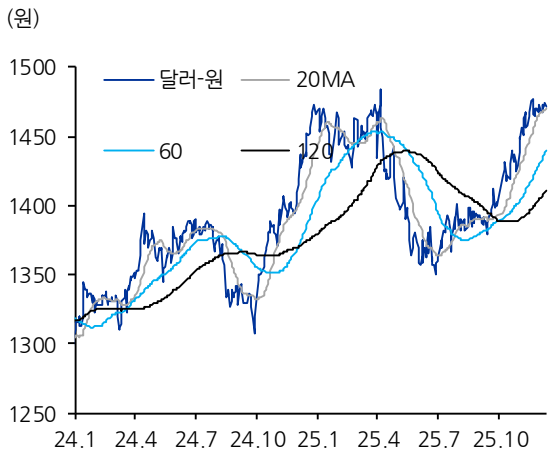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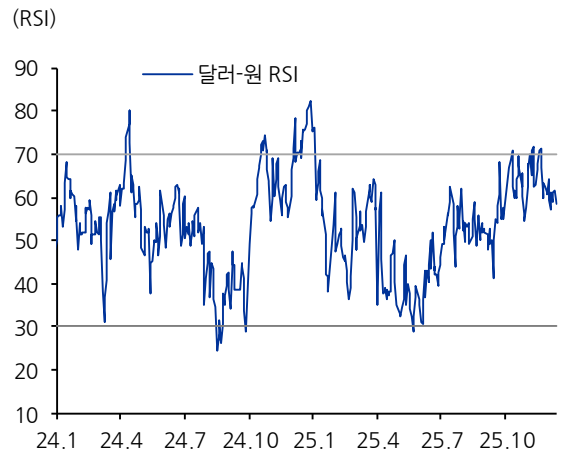
(단위: %, $)

		12/15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471.00	-0.2%	0.3%	-0.1%
	달러지수	98.31	-0.1%	-0.8%	-9.4%
	달러/유로	1.175	0.1%	1.0%	13.5%
	위안/달러(역외)	7.04	-0.1%	-0.4%	-4.0%
	엔/달러	155.26	-0.4%	-0.4%	-1.2%
	달러/파운드	1.338	0.1%	0.4%	6.9%
	헤알/달러	5.42	0.0%	-0.2%	-12.3%
상품	WTI 근월물($)	56.67	-1.3%	-3.8%	-21.0%
	금 현물($)	4,305.19	0.1%	2.7%	64.0%
	비트코인($)	86,265.00	-4.6%	-5.2%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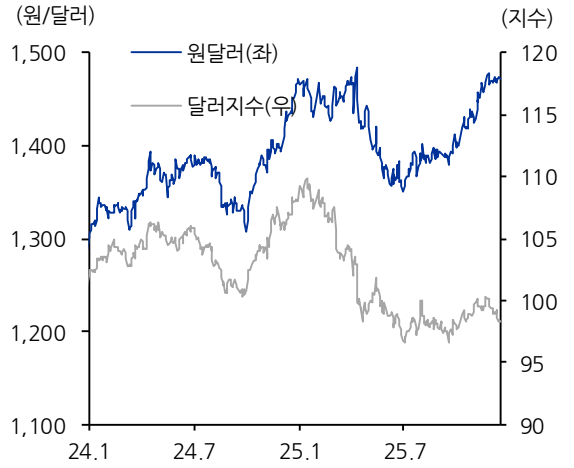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달러-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2.70원 하락한 1,471.00원에 마감. 야간거래에서는 1,468.00원 마감.
-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주들이 급락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었고 이날 장중에도 영향. 달러-원은 장초반 1,470원대 후반에서 등락했고 코스피도 2% 넘게 급락.
- 그러나 달러-원은 오후부터 상승폭을 축소하기 시작해 하락 전환. 현금 환헤지 부담과 함께 이날 오전 단칸지수 호조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이에 연동된 측면도 존재.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 인덱스는 엔화 강세 속 하락.
- 이번주 금요일 예정된 BOJ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 및 추가 인상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엔화는 점차 강세로 가는 분위기.
- 그러나 달러는 뉴욕 증시에서 낙폭 축소. 그간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꼽혔던 케빈 해싯 위원장이 최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지난주 금리 인하에 매우 찬성했으나, 1월 결정은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고 평가.
- 금일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예정.